



연예종합



소속사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동방신기 3인. 왼쪽부터 시아준수·막키유천·영웅재중. 스포츠동아DB

동방3인 “日서 그룹결성” SM엔터 “22억원 손배소”

3인, 日서 독자활동…전속계약도 체결

“22억 원 손해배상” “3인 독자활동 시작”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영웅재중·막키유천 3인(이하 3인)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SM은 3인에게 본안 소송과 22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동방신기 3인은 일본에서 드디어 독자적인 팀 활동에 들어갔다.

SM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동방신기에 대한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을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소장에 손해배상 청구도 언급한 것. SM은 소장에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나머지 2명의 멤버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3인의 전속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우선 일부 청구로서 화장품 광고 모델로 및 심전 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액 22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인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예상했던 일이다. 소장을 받아 본 후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오히려 세 멤버가 SM에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도 해온 만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3인은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동방신기의 일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에이벡스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준수·재중·유천 3명이 유닛을 결성하기로 했다. 3명은 에이벡스와 새로운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에이벡스 측은 “3명의 새 유닛으로 돔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라며 6월5일부터 13일까지 오사가 돔 및 도쿄 돔에서 열리는 ‘준수·재중·유천 핑크기빙 라이브 인 돔’ 팬미팅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도 3인의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3인만의 유닛을 결성해 활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스스로 동방신기를 버리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비, 이번엔 20억 피소

희삿돈 횡령 혐의…소속사 “말도안돼”

틀스타 비(사진)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1년여 만에 가수로 컴백해 활동하고 있는 비는 패션 디자인업체 제이툰크리에이티브 주주 7명과 함께 D사 대표 이 모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피소됐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들이 제이툰크리에이티브 설립 과정에서 주식 납입금 25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며 “이들은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 제이툰엔터테인먼트는 14일 “비는 제이툰크리에이티브의 전속모델이며, 모델로서 역할에 충실했을 뿐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두 거장의 만남 수가 되다. 14일 오전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시’(감독 이창동)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윤정희(왼쪽)와 이창동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정희-이창동 한편의 ‘詩’가 되다

환갑 넘은 나이…트로이카 시대 미모 여전
영화 ‘시’ 주연 딸아 소녀같은 감수성 연기

“마치 친한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에요.”

5월13일 개봉하는 영화 ‘시’(감독 이창동, 제작 파인하우스 필름·유니코리아 문예투자)를 통해 16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원로 배우 윤정희(66)가 밝힌 소감이다.

윤정희는 1967년 ‘청춘극장’으로 데뷔해 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한국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던 주인공. 이번 새 영화 ‘시’는 1994년 개봉된 ‘만무방’ 이후 오랜 연기 공백을 깨는 작품이다.

윤정희는 14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린 ‘시’ 제작보고회에서 “처음 촬영장에 들어온 순간, 친한 친구들을 만난 느낌이었다. 내가 영화계를 떠난 적이 없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았다”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 “예순이 넘었지만, 아직 소녀처럼 살고 있다. 스태프들이 걱정을 해주는데, 나는 전혀 걱정되지 않

았다. 무슨 일이든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행복하고 힘이 들지 않는 법”이라고 여유를 보였다.

윤정희는 ‘시’에서 손자와 함께 사는 평범하게 살다 우연히 시 강좌를 들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소녀같은 순수함을 가진 ‘미자’ 역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윤정희의 본명도 손미자이다. 처음부터 윤정희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작업했다는 이창동 감독은 “주인공 이름을 적당한 촌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인물로 생각했다. 그래서 흔하고 옛날 이름이지만 아름다움이 있는 ‘미자’로 정했는데, 미자(윤정희)가 미자(극중 이름)가 됐다”며 웃었다.

윤정희도 “영화 속 미자와 실제 미자(윤정희)도 비슷한 점이 많다. 남편(재물 피아니스트 백건우)도 시나리오를 읽고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캐릭터의 성격을 연기하는데 별 걱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정희는 환갑을 지난 나이에도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묻는 질문에 수줍게 웃은 후 “평범하다. 머리로 내가 집에서 하고, 옛 나는 건 없다. 그러나 피부는 관리한다. 여자 피부는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 과일과 여러 가지를 섞어 만든 것으로 직접 피부마시지를 한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전도연-신은경 ‘야한 경쟁’

73년생 동갑내기 엄마스타 스크린 격돌
‘하녀’-‘열음비’서 농도 짙은 베드신 연기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전도연과 신은경. 1973년 2월생인 동갑내기로 전도연은 한 살인 딸이, 신은경은 다섯 살인 아들이 있는 엄마 스타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들은 최근 스크린에 컴백하면서 파격적인 연기에 도전하는 등 님은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은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새 영화에서 과감한 베드신에 도전했다. 전도연은 5월 13일 개봉하는 영화 ‘하녀’(감독 임상수·제작 미로비전)에서 상대역인 이정재와 같은 베드신을 두 번이나 촬영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신은경도 최근 촬영을 마치고 여름 개봉을 준비 중인 영화 ‘열음비’(감독 정윤수)에서 정준호와 농도 짙은 베드신 촬영에 임했다.

스크린 컴백작도 장르는 다르지만 모두 남자의 외도와 그에 따른 삼각관계가 스토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전도연이 ‘멋진 하루’ 이후 2년 만에 출연하는 ‘하녀’는 부잣집에 들어온 하녀가 주인집 남자와 육체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은 에로틱 스릴러.

‘6월의 일기’ 이후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신은경의 ‘열음비’ 역시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한 여자가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멜로드라마다.



이은우, ‘산 넘어 남촌’ 돌연 하차
주연 포기할만큼 급한 가정문제?

드라마 여주인공이 제작진의 사전 양해 없이 출연도중 하차해 물의를 빚고 있다.

KBS 1TV 드라마 ‘산 넘어 남촌’에 출연 중이던 연기자 이은우(사진)는 최근 제작진에게 드라마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했다. 이은우는 도중 하차 이유를 가정 문제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새로운 연기자 투입이나 극본 수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우는 가족 드라마인 ‘산 넘어 남촌’에서 젊은 층 출



두 사람의 인연은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MBC에서 방영한 의학드라마 ‘종합병원’까지 이어진다. 당시 신은경은 의사로, 전도연은 간호사로 출연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연기파 여자 스타로 자리잡았다. 2007년 전도연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신은경은 결혼 생활을 접고 홀로서기에 나서는 시련을 겪으며 둘의 행보가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신은경이 이후 ‘엄마가 뽀빠!’ ‘하얀 거짓말’ 등의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로 호평을 받는데 이어 이혼 영화 ‘열음비’를 통해 스크린에 돌아오면서 두 여배우가 다시 나란히 활동을 하게 됐다.

연자를 대표하는 손주 며느리 역으로 출연해 반효정, 양금석 등의 선배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그동안 3년 넘도록 드라마에 출연했던 이은우는 3월 초 미국에 사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이유로 2주간의 휴가를 얻어 드라마에서 잠시 빠졌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고 드라마에 복귀한 뒤 다시 가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드라마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산 넘어 남촌’의 제작 관계자는 “그녀가 말던 역에 다른 연기자를 내세우면 극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연스러운 스토리 진행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 문제라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가족극인 연속극 특성상 출연자의 하차는 다른 드라마보다 공적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김갑수·이미숙·김청 등 중견배우 맹활약
감칠맛 나는 연기내공…시청률 정상등극

이유 있는 정상 등극이다.

‘격전’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모은 지상파 3사 수목 드라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KBS 2TV ‘신데렐라 언니’의 선전에는 이유가 있다. 시청자들과 방송관계자들이 뽑은 정상 등극의 원동력은 바로 ‘조연들의 열연’이다.

‘신데렐라 언니’(극본 김규완·연출 김영조)에는 문근영, 천정명, 서우 등 청춘스타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들 젊은 주인공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이미숙, 김갑수, 김청 등 중견 배우들도 있다. 이들 중견 배우들은 내공을 앞세워 감칠맛 나는 연기를 펼치며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연기자들은 이미숙·김갑수 콤비. 바람기 많은 새엄마와 순진한 남편으로 만난 두 사람은 극 초반, 멜로 구도를 이끌며 재미를 더했다. 특히 그동안 카리스마를 겸비한 강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한 이미숙의 코믹한 연기를 두고 시청자들이 ‘능청 멜로퀸’이라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김청의 표독스러운 연기도 드라마의 긴장을 더한다. 천정명의 의붓 엄마로 등장한 김청은 최근 출연작들에서 보여준 푼수개 다분한 캐릭터 대신 ‘악모’, ‘악처’라는 새 옷을 입었다. 사사건건 천정명과 부딪히며 괴롭혀 드라마를 대표하는 악역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화려한 조연 캐릭터가 포진한 ‘신데렐라 언니’와 달리 MBC ‘개인의 취향’과 SBS ‘잠사 프린세스’는 중견 배우들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다.

MBC 드라마국의 한 관계자는 “‘신데렐라 언니’ 인기의 힘은 관록 있는 중견 배우들의 힘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드라마 초반 이미숙과 김갑수의 코믹한 멜로 연기가 없었다면 드라마는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잇 무비

●베스트셀러



감독 이정호, 출연 엄정화 류승룡, 관람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4월15일

엄정화가 섬뜩한 스릴러에 도전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백희수(엄정화)는 표절 의혹을 받으며 더 이상 창작을 할 수 없는 슬럼프에 빠진다. 재기를 꿈꾸는 그녀는 시골 별장으로 내려가 창작활동을 시작한다. 별장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딸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희수에게 들려준다. 창작에 몰입과 있던 희수는 딸이 해주는 이야기를 소설로 완성한다. 하지만 그 소설마저 이미 10년 전 발표된 작품이란 사실이 밝혀지고 희수는 다시 한 번 표절시비에 휘말린다.

●작은 연못



감독 이상우, 출연 문성근 김희하, 관람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4월15일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수 백 명의 주민이 학살된 노근리 사건을 다룬 영화다. 1950년 7월, 한반도의 허리쯤 되는 산골 대문바위골 주민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지도 모른 채 평화롭게 살아간다. 북한군에게 패한 미군의 전선은 대문바위골 읍내까지 내려오고 마을에도 소개령이 내려진다. 주민들은 미군이 보호해줄 거라 믿음으로 피난길에 오른다. 하지만 주민들의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기획부터 개봉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편집 | 김원경 기자 pudgala@donga.com